

■ 반쪽 서평 ■

What is Migration History?

Christian Harzig and Dirk Hoerder, Cambridge:
Polity Press, 2009, xxii+ 181pp.

이 책은 이주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서술된 입문서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연구가 학제적 연구 분야라는 점에서 접근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. 하지만 이 책은 매우 흥미롭다. 이주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요 이슈를 명확하게 분석하고, 역사를 통해 이주문제를 개관하고 있으며, 고전적 이론을 통해 이 주제를 해석하고 있다. 뿐만 아니라, 트랜스내셔널한 삶과 같은 현대의 문제와 이를 둘러싼 논쟁을 통해 시민권 문제 등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. 이 책은 특히 최근 이민사가들이 어떻게 역사적 관점을 통해 지구에서의 인간의 삶을 다시 저술하기 시작하였는지를 밝혀준다. 필자들은 책 전체를 통해 이주를 글로벌한 현상으로 여기고, 특별한 쟁점과 지역들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, 이주민 남성들과 여성들의 일상을 그려내는 적절한 역사적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. 이 책은 이민인종연구회 회원인 이용일 교수(부산대 인문학연구소)에 의해 조만간 번역 소개될 예정이다.